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5

청소년·청년의 첫 금융생활

첫 계약과 첫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절해야 할 요구를 알아본다.

학습자용 교재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이 교재를 사용하는 법

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세금·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습 전 필수 기초'를 먼저 읽는다. 전체 학습은 기초 35분과 8개 Part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60분 핵심 학습도 왜 배우는지·개념의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고 사례 수를 줄여 진행한다.

학습 목표

- 나이와 계약 종류에 따른 동의·확인 사항을 찾는다.
- 급여명세서·플랫폼 정산·학자금·통신·구독 계약을 읽는다.
- 첫 신용카드·할부·후불결제가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 계좌·신분증·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친구·고용주·광고를 거절하고 신고한다.

학습 전 필수 기초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첫 금융생활의 작은 약속이 앞으로의 선택 범위를 만듭니다

처음 만든 계좌·카드·휴대전화 계약과 첫 급여 기록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납부일을 놓치면 돈뿐 아니라 신용과 개인정보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계약·급여·후불·신용의 기본을 먼저 익힌 뒤 첫 금융상품과 일자리 사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

- 첫 금융생활은 월급 액수보다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기록을 읽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 세전 급여와 실제 입금액은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후불결제·대출은 미래 소득을 먼저 쓰는 약속이므로 결제일과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 취업이나 부업을 이유로 통장·카드·인증정보를 요구하면 넘기지 말고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이 학습이 지키는 것

- 첫 급여
- 명의와 계정
- 앞으로의 신용
- 근로조건과 임금 기록
- 또래 압력에서 벗어날 선택권

생활안전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순서	무엇을 하는가
1	처음 계좌·카드·일자리 계약을 만납니다.
2	명의·납부·임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3	또래·광고·급함 때문에 권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4	계약과 급여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알아둘 필수개념

각 개념은 뜻만 외우지 않습니다. 생활 예와 반대 예를 대조한 뒤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초개념 1 · 명의

계좌·휴대전화·계약의 주인으로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의 거래 책임과 확인 절차가 나에게 연결됩니다.	친구가 쓰더라도 내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명의는 권리와 책임을 연결하므로 통장·카드·유심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사용할 사람이 친구면 내 명의를 빌려줘도 되나요?

답과 이유: 안 됩니다. 범죄와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 2 · 근로계약

무슨 일을 얼마 동안 하고 임금·시간·휴일을 어떻게 정할지 적은 약속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시급·근로시간·급여일을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사장과 친하면 말로 정한 조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근로계약과 임금기록은 급여를 확인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급여가 입금되면 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답과 이유: 필요합니다. 시간·임금·업무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기초개념 3 · 후불

지금 사용하고 미래의 소득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신용카드·후불결제의 다음 결제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한도가 남아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후불은 미래 현금흐름을 줄이는 빛이므로 사용일보다 상환일을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결제 한도는 내 저축과 같은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초개념 4 · 신용

약속한 돈을 갚고 계약을 지킬 가능성에 관한 기록과 판단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대출·카드 납부 기록이 쌓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을 점수로 매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이력과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오류가 있으면 확인·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따른 평가이며 사람의 가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초개념 5 · 개인정보와 인증

나를 식별하고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생활 예	해당하지 않는 예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공식 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이면 통장 비밀번호까지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 연결: 첫 일자리·대출·계좌 사기는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요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급여 지급에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답과 이유: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다른 정보입니다.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용어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필요한지와 실제 판단 순서를 생활 사례로 익힙니다.

기초학습 1 · 근로계약과 급여

월급은 어떤 약속에서 생길까요?

근로계약은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하고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과 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시간을 읽습니다.
- 2.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3. 실제 입금액과 근무기록을 대조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월 250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고정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맞으면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채용 공고의 월급과 입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볼까요?

답과 이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기초학습 2 · 세전·세후와 공제

월급에서 왜 돈이 빠질까요?

세전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공제 뒤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공제는 모두 같은 이름과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광고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실제 임금액과 비정기 지급·공제를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지급총액과 기본급·수당을 나눕니다.
- 2. 세금·보험료 등 공제명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3. 실수령액을 월 예산의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연봉 3천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2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기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공제액은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돈이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항목별 근거와 계산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생활비 예산은 세전 월급으로 잡아도 될까요?

답과 이유: 아닙니다. 실제 임금되는 세후 금액과 변동 가능한 수당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학습 3 · 후불결제와 첫 신용

지금 안 내는 돈은 공짜일까요?

신용카드·후불결제는 결제 시점과 돈을 갚는 시점이 다른 신용거래입니다. 사용액은 미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됩니다.

소액을 여러 번 쓰면 총액이 보이지 않기 쉬우므로 결제일과 누적 사용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결제일과 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2. 사용 즉시 예산에서 차감해 기록합니다.
- 3. 할부·리볼빙 등 추가 비용과 상환기간을 확인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이번 달 후불결제 5만원을 네 번 쓰면 다음 달에는 2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각각 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 카드한도는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허용한 최대 신용액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이면 이번 달 지출이 아닌가요?

답과 이유: 이번 달에 소비한 금액이며 다음 달 현금흐름에 상환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기초학습 4 · 취업·부업을 이용한 금융사기

일을 시작하는데 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정상적인 급여 지급에는 본인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자체를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자는 고액 부업, 거래대금 전달, 세금 절감 등을 내세워 계좌와 명의를 이용하고 피해금 이동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 1. 회사명·사업자·업무내용을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2. 선입금·대출·계좌 양도 요구를 거절합니다.
- 3.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알립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구매대행 업무라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죄자금 이동일 수 있으므로 중단합니다.

흔한 오해: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수수료만 받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법적·금융상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확인

회사가 보안 때문에 체크카드를 맡기라고 하면 넘겨도 될까요?

답과 이유: 안 됩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말고 회사와 업무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교재가 먼저 보여 주는 시범풀이

친구의 통장 대여 부탁

친구가 잠깐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1. 결정: 명의와 접근수단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2. 정보: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위험: 범죄수익 이동이나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4. 행동: 거절하고 이미 넘겼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상담합니다.
5. 기록: 대화와 전달 여부를 보존합니다.

친분은 명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초 이해확인

1. 사용할 사람이 친구면 내 명의를 빌려줘도 되나요?

확인: 안 됩니다. 범죄와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입금되면 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확인: 필요합니다. 시간·임금·업무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3. 결제 한도는 내 저축과 같은가요?

확인: 아닙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신용점수가 낮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확인: 아닙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따른 평가이며 사람의 가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5. 급여 지급에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확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다른 정보입니다.

6. 채용 공고의 월급과 임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볼까요?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7. 생활비 예산은 세전 월급으로 잡아도 될까요?

확인: 아닙니다. 실제 입금되는 세후 금액과 변동 가능한 수당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8.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이면 이번 달 지출이 아닌가요?

확인: 이번 달에 소비한 금액이며 다음 달 현금흐름에 상환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9. 회사가 보안 때문에 체크카드를 말기라고 하면 넘겨도 될까요?

확인: 안 됩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말고 회사와 업무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9개 질문의 뜻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Part 1로 이동합니다. 어렵다면 해당 기초개념을 다시 읽고, EDU-00 공통 기초과정을 먼저 학습합니다.

PART 1 · EDU-05

기초를 확인하고 나의 준비 상태를 살핍니다

기초개념을 배운 뒤 점수보다 오늘 바꿀 행동 한 가지를 찾는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렇다·연습이 필요하다'로 표시한다.

- ☐ 나는 명의의 뜻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 나는 '플랫폼 정산'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다.
- ☐ 계약·거래의 금액과 날짜를 한곳에 기록한다.
- ☐ 광고와 공식 설명서를 구분해 본다.
- ☐ 총비용과 최악의 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공식 기관을 알고 있다.
- ☐ 가족이나 동료와 확인 규칙을 정해 두었다.
- ☐ 한 달 안에 다시 점검할 날짜를 정한다.

0~2개: Part 3과 4부터 천천히 읽는다. 3~5개: 사례에서 결정 이유를 말한다. 6~8개: 가족·동료와 확인 규칙을 공유한다.

PART 2 · EDU-05

왜 생활안전과 연결되는가

첫 계약과 첫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절해야 할 요구를 알아본다.

안전은 지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금융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계약 시점, 정보의 비대칭, 기록의 부재,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 때문에 커진다. 따라서 이 모듈은 '알기→비교하기→행동하기→기록하기'의 순서를 반복한다.

이 모듈의 핵심 관점

- 첫 금융기록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습관과 신용기록이 된다.
-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범죄와 피해에 연결될 수 있다.
- 급여는 입금액만 보지 말고 계약시간·기본급·수당·공제·실수령액을 대조한다.
- 통신·구독·후불결제는 각각 작아 보여도 같은 날 청구되면 생활비를 압박한다.

PART 3 · EDU-05

핵심 구조와 생활용어

이름을 외우기보다 돈·권리·책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본다.

용어	생활 속 뜻	확인 행동
명의	계좌나 계약의 법적 주체로 기록된 사람.	내 계약·거래에서 '명의'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근로계약서	임금·시간·업무 등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	내 계약·거래에서 '근로계약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급여명세서	임금의 구성과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문서.	내 계약·거래에서 '급여명세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플랫폼 정산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수입.	내 계약·거래에서 '플랫폼 정산'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학자금대출	등록금·생활비 등을 위해 빌리고 약정에 따라 갚는 돈.	내 계약·거래에서 '학자금대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할부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내는 계약.	내 계약·거래에서 '할부'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후불결제	결제 뒤 정한 날에 갚는 신용성 거래.	내 계약·거래에서 '후불결제'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접근매체	카드·비밀번호·인증서 등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내 계약·거래에서 '접근매체'가 나타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공식 근거로 확인한 핵심 사실

[확정 사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확인할 조건: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신 근로기준법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토일 2026-08-22
[확정 사실] 근로계약의 핵심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확인할 조건: 고용형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토일 2026-08-22

[안전 원칙] 채용·부업을 이유로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않는다.

확인할 조건: 정상 업무인지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큰 법적·금융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출처: 경찰청 · 검토일 2026-08-22

생활 변화와 새 위험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취업·고수익 부업은 출국·계좌 제공 전에 검증합니다

고수익·항공권 제공을 내세운 구인이 감금, 불법 콜센터, 자금세탁·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여권·휴대전화·통장·인증수단을 고용주에게 맡기거나, 업무라며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회사 실체, 근로계약, 취업비자, 근무지와 업무를 정부·재외공관 등 독립된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의심되면 출국·송금을 멈추고 경찰에 상담하며, 해외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재외공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식 근거: 경찰청 ·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 주의 · 검토 2026-08-24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51111095947567

구조를 읽는 네 질문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맡기는가?
- 언제 조건이 바뀌거나 의무가 생기는가?
- 손실이 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록과 기한이 필요한가?

PART 4 · EDU-05

비교·판단 도구

같은 기준표를 쓰면 급한 순간에도 판단 순서를 지킬 수 있다.

다섯 단계 비교 카드

1.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2. 금액·기간·해지·연체·개인정보 조항을 표시한다.
3. 부모·교사·상담기관 등 신뢰할 사람에게 보여 준다.
4. 계좌·비밀번호·인증번호 대여 요구에는 짧고 분명하게 거절한다.
5. 계약서·명세서·해지화면을 폴더에 보관한다.

숫자 하나가 정답이 아니다. 목적·시점·총비용·최악의 결과·권리·증거가 함께 맞아야 한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법

선택한 안만 적지 말고 제외한 안과 그 이유도 적는다. 나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확인 시점	보인 정보	선택·제외 이유	다음 확인
결정 전	공식 설명·계약 조건	비용·위험·권리 비교	기준일·기한
결정 직후	거래·서명 결과	예상과 실제 차이	철회·변경 가능성
정기 점검	잔액·청구·공시 변화	계속·조정·종료	다음 점검일

PART 5 · EDU-05

다섯 장면 사례실습

정답을 고른 뒤 나중에 드러난 정보까지 확인한다.

CASE 01 · 통장과 신분증

고용주가 급여 등록이라며 통장과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 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 ☐ B.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
- ☐ C.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

권장 선택: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판단의 갈림길: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안전한 선택
B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2 · 친구의 계정 대여

친구가 게임 거래에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 ☐ B.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
- ☐ C.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

권장 선택: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판단의 갈림길: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안전한 선택
B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3 ·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가능액 전부를 생활비로 받으려 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 ☐ B.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
- ☐ C.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

권장 선택: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판단의 갈림길: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안전한 선택
B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4 · 플랫폼 수입

정산액이 매출과 달라 생활비가 모자랐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 ☐ B.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
- ☐ C.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

권장 선택: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판단의 갈림길: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안전한 선택
B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CASE 05 · 첫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여러 카드를 만들려 한다.

어떻게 행동할까?

- ☐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 ☐ B.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
- ☐ C.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

권장 선택: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판단의 갈림길: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나중에 드러난 정보: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세 선택을 끝까지 비교하기

선택	즉시 보이는 결과	나중 위험·확인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안전한 선택
B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C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	편의만 보지 말고 비용·권리·기한을 다시 확인

내 기록

- ☐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정보: _____
- ☐ 내가 보관할 계약·거래·연락 증거: _____
-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할 중단 기준: _____

PART 6 · EDU-05

행동계획과 기록

좋은 계획은 누가·언제·무엇을 확인할지 적는다.

1. 시작 전: 보호자 동의·본인확인·계약 상대를 확인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2. 첫 30일: 모든 입출금 알림과 주간 거래점검을 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3. 첫 60일: 급여·정산·통신·구독·상환일을 한 달력에 둔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4. 첫 100일: 쓰지 않는 서비스와 연결을 해지하고 계약파일을 정리한다.

실행 날짜, 확인한 공식 출처, 상대방 답변, 다음 점검일을 함께 적는다.

활동지 4종 활용

활동지	기록할 내용
첫 급여 배분표	실수령액 · 필수비 · 비상금 · 자유지출
첫 계약 확인표	상대방 · 금액·기간 · 해지·연체 · 보관 문서
거절 문장 카드	계좌 대여 · 인증번호 · 선불 요구 · 도움 요청
첫 100일 계획	30일 · 60일 · 100일 · 점검 파트너

PART 7 · EDU-05

권리·도움 요청

권리는 증거와 기한을 찾을 때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내가 확인할 권리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을 권리
- 학자금 지원·상환 조건을 설명받을 권리
- 금융상품의 비용·위험·해지 조건을 설명받을 권리
- 불법 계좌 대여·선불 요구를 거절하고 신고할 권리
-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선택하고 철회할 권리

권리를 쓰기 위한 다섯 칸

사실	쟁점	증거	요구	기한
누가·언제·무엇을	무엇이 다름	계약·거래·연락	구체적 답변·조치	근거와 확인일

도움 요청 문장

‘저는 ○월 ○일 ○○ 계약·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사실은 ○○이고, 가진 증거는 ○○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조치는 ○○입니다. 적용 기한과 다음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식 확인처

기관	확인 내용	주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임금 안내	https://www.moel.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https://www.kosaf.go.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PART 8 · EDU-05

복습·평가·다음 행동

틀린 문항은 약점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위치를 알려 준다.

핵심 복습

- 첫 금융기록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습관과 신용기록이 된다.
-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범죄와 피해에 연결될 수 있다.
- 급여는 입금액만 보지 말고 계약시간·기본급·수당·공제·실수령액을 대조한다.
- 통신·구독·후불결제는 각각 작아 보여도 같은 날 청구되면 생활비를 압박한다.
-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 금액·기간·해지·연체·개인정보 조항을 표시한다.
- 부모·교사·상담기관 등 신뢰할 사람에게 보여 준다.
- 계좌·비밀번호·인증번호 대여 요구에는 짧고 분명하게 거절한다.
- 계약서·명세서·해지화면을 폴더에 보관한다.

사후평가 10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은 별도 평가 세트와 웹 화면에서 확인한다.

1. 청소년·청년의 첫 금융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 ☐ A.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 ☐ B.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
- ☐ C.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
- ☐ D.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 ☐ A. 현재 보이는 금액만
- ☐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 ☐ C. 광고 순위와 후기 수
- ☐ D. 친구가 선택한 상품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 ☐ A. 기억해 둔다.
- ☐ B.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
- ☐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 ☐ D.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 ☐ A.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
- ☐ B.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
- ☐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 ☐ D.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 ☐ A.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벌다.
- ☐ B.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
- ☐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 ☐ D.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

6. 사례 '통장과 신분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 ☐ B.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
- ☐ C.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7. 사례 '친구의 계정 대여'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 ☐ B.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
- ☐ C.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8. 사례 '학자금과 생활비'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 ☐ B.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
- ☐ C.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9. 사례 '플랫폼 수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 ☐ B.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
- ☐ C.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10. 사례 '첫 신용카드'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 ☐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 ☐ B.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
- ☐ C.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
- ☐ D.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

30일 뒤 점검

오늘 바꿀 행동 1개, 확인할 공식 출처 1개, 함께 점검할 사람 1명, 다시 볼 날짜 1개를 적는다.

주차별 실천 기록

주차	확인한 행동·거래	새로 알게 된 사실	다음 주 행동
1주			
2주			
3주			
4주			

부록 A · 내 생활 적용 체크리스트

수업이 끝난 뒤 실제 계약·거래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는 적지 않고 확인 여부와 다음 행동만 표시한다.

점검 질문	확인	다음 행동·날짜
첫 금융기록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습관과 신용기록이 된다.	☐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범죄와 피해에 연결될 수 있다.	☐	
급여는 입금액만 보지 말고 계약시간·기본급·수당·공제·실수령액을 대조한다.	☐	
통신·구독·후불결제는 각각 작아 보여도 같은 날 청구되면 생활비를 압박한다.	☐	
시작 전: 보호자 동의·본인확인·계약 상대를 확인한다.	☐	
첫 30일: 모든 입출금 알림과 주간 거래점검을 켜다.	☐	
첫 60일: 급여·정산·통신·구독·상환일을 한 달력에 둔다.	☐	
첫 100일: 쓰지 않는 서비스와 연결을 해지하고 계약파일을 정리한다.	☐	

한 달 회고

- ☐ 내가 멈춘 위험한 행동: _____
- ☐ 공식 정보로 바꿔 확인한 판단: _____
- ☐ 가족·동료와 새로 정한 규칙: _____

부록 B · 공식정보 확인·변경 기록

한도·요건·기한·기관 서비스는 바뀔 수 있다. 적용 날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바뀐 내용을 적는다.

기관	확인할 내용	확인 날짜·문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임금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변경 이력

날짜	바뀐 내용	영향 받는 Part·활동지	확인자

내용 기준 2026-08-24 ·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긴급한 제도 변경은 정기점검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영한다.